

# ‘금남로를 들썩인 무대’ 총장 K스타 챌린지 진행 중

매달 금남로 차없는거리서 경연 전국 참여...“K팝 스타 배출하겠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경연대회 ‘총장 K스타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다.

6일 광주 총장1·2·3가 상인회에 따르면 매달 개최하는 해당 대회는 총장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참가자와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정기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앞서 총장1·2·3가 상인회는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금남로 차 없는 거리 메인 무대에서 세번째 예선을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노래, 춤, 악기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 총 10팀이 무대에 올라 치열한 경연을 펼쳤다. 총 상금 1300만원 규모로 마련된 이 행사는 ‘총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신한은행 호

남제주본부도 함께 후원하고 있다.

이번 예선전은 특히 처음으로 ‘차 없는 거리’ 행사와 함께 열려 이목을 끌었다. 행사 전에는 난타와 팝페라, 벨리댄스 등 식전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져 시민들의 발길을 모았다. 무더위 속에서도 약 300여명이 현장을 찾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총 6회의 예선을 거쳐 오는 11월 본선 무대가 예정돼 있다.

이날 1등은 댄스팀 ‘원스텝’이 차지했다.

다음 예선 경연은 오는 9월27일 개최될 예정이다.

상인회 측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열린 무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일성 총장1·2·3가 상인회장은 “매월 개최되고 있는 K스타 챌린지가 이번엔 금남로 차 없는 거리와 함께 열려 의미가 컸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광주광역시 동구 총장로1·2·3가 상인회가 ‘총장K스타 챌린지’를 지난 5일 금남로 차 없는거리 일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댄스팀인 ‘원스텝’ 1등을 수상했다.

총장로1·2·3가 상인회 제공

더 많이 찾고 즐기는 축제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이 무대에서 K팝 스타를 배출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북구, 행정 혁신 노하우 공유 전국 5개 지자체... 혁신사례 등

광주광역시 북구가 지난 4일 ‘2025년 정부혁신 멘토링’ 행사를 개최하고 전국 5개 지자체에 북구의 우수 혁신사례와 정책 노하우를 공유했다고 6일 밝혔다.

‘2025년 정부혁신 멘토링’은 전국 지자체 중 행정 혁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수기관들의 혁신사례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해 멘토링 참여 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우수사례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혁신역량을 인정받아 이번 멘토링에서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멘토 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 4일 오후 2시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진행된 이번 멘토링에는 북구의 혁신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여수시, 해남군, 부안군, 통영군, 양구군 등 총 5개 지자체가 멘티로 참여했다.

북구는 △북구 역점 추진 사업 △칸막이 해소 및 기관 간 협업 노력 △일하는 방식 혁신사례 △혁신평가 대응 노하우 등 4개 분야를 주제로 한 시간가량 멘토링을 진행했다.

특히 △생활안전지원금 지급 △삼호축산 악취 민원 해결 사례 △우리 동네 골목형 상점가 만들기 프로젝트 △북구형 통합돌봄사업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도입 등 북구가 역점 추진했던 대표적인 혁신사례를 소개하고 성과를 공유한 것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북구는 이번 멘토링에 참여한 지자체들이 자율·주도적으로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우리 북구의 혁신 경험이나 지자체에 전파돼 지역 행정 전반의 혁신 역량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원들과 주민들이 4일 서구청 1층에서 열린 ‘MBTI 기부챌린지 바자회’에서 직원기부품 부스와 천원국시, 김밥 등 먹거리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 서구, 공직자 참여해 ‘MBTI 기부챌린지’ 개최

아동 공부방 조성 위한 이색 바자회

광주광역시 서구가 공부방이 없는 주거 빈곤 아동들에게 ‘꿈이 빛나는 공부방’을 선물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색 바자회 ‘MBTI 기부챌린지’를 개최했다.

6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기부 참여 방식을 MBTI 유형에 빗대어 △현금기부형(Monetary Donation) △물품구입형(Buying Donation) △재능기부형(Talent Donation) △물품기부형(Item Donation) 등 4가지로 구분해 공직자들이 자신의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현금기부형은 청사 1층 기부 키오스크를 통한 참여, 물품구입형은 바자회 물품 및 먹거리 구매, 재능기부형은 사회, 공연, 행사장 운영 등 직접 참여, 물품기부형은 생활용품, 도서, 의류 등 물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서구는 상반기부터 고액기부자 모임인 서구아너스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

다.

이번 바자회는 그 연장선에서 마련된 공직자 참여형 나눔 프로젝트다.

특히 이번 행사는 ‘복지틈새 재료’를 실현해 가고 있는 서구아너스의 선한 영향력에 공직자들이 화답한 연대의 실천으로 서구청 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무 전반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달 17일부터 약 10일간 진행된 기부금품 모집에는 총 157개 품목 710여개 물품이 모였고 바자회 당일에는 서구청 공직자들이 직접 판매자로 나서 25개 부스를 운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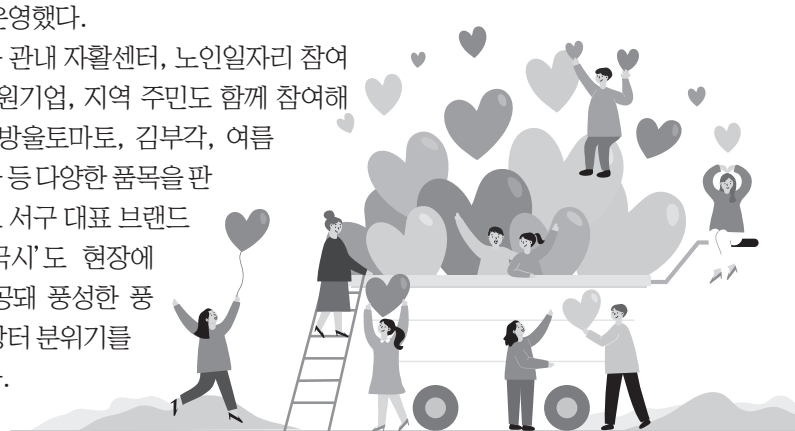
서구 관내 자활센터, 노인일자리 참여자, 후원기업,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해 감자, 방울토마토, 김부각, 여름 파자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서구 대표 브랜드 ‘천원국시’도 현장에서 제공돼 풍성한 풍성한 장터 분위기를 더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 1240여만원 전액은 공부방이 절실한 주거 빈곤 아동을 위해 사용된다.

서구는 책상, 침대, 수납가구, 도배 등 실질적인 학습환경 개선이 필요한 아동들을 선정해 맞춤형 공부방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바자회는 마음 따뜻한 서구아너스의 민간 후원에 우리 공직자들이 진심을 다해 화답한 새로운 형태의 나눔 실천이다”며 “서구의 나눔은 주민만의 몫이 아니라 공직자도 함께 실천해 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작은 연대가 공부방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남구, 자활 꿈 담은 ‘국수 전문점’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3·4번

광주광역시 남구가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3·4번 부스에서 ‘국수랑 밀이랑’ 개점식이 열렸다고 6일 밝혔다.

남구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신규 사업장으로, 남구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구청에서 관내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제공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 개점한 국수랑 밀이랑 점포는 구청과 남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한 협력 사업 결과물의 하나이다.

그동안 두 기관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자활사업단인 국수랑 밀이랑을 만든 뒤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밀 국수 조리법과 고객 관리 방법 등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자활사업에 함께한 주민들 가운데 4명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취업에 성공, 이번 에 문을 연 점포에서 일을 하고 있다.

10평 남짓 크기의 국수랑 밀이랑 점포에는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저소득 주민의 원대한 꿈이 담겨 있다.

특히 새 일자리를 구한 주민 4명은 지역에서 생산한 밀을 가공해 만든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민들에게 공급하고, 체험 활동을 지원하면서 자활사업 참여의 기쁨을 누릴 예정이다.

또 구청과 남구 지역자활센터는 국수 전문점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반으로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정준 기자

군 소음영향도 조사 사업설명회 광산구, 지역민 의견 수렴·안내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군 소음영향도 조사 사업설명회’가 열린 것과 관련해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이번 설명회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공군본부가 주관했으며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는 ‘군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 방법, 일정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전문 용역기관이 수행한다.

국방부는 조사로 측정한 데이터를 활용해 정밀한 모형화 작업을 거친 뒤 소음 등고선(소음대책지역·소음보상지역)을 작성한다.

이에 따라 소음 등급과 보상 기준이 정해진다.

현재 소음 등급은 1종(95웨클 이상), 2종(90~95웨클), 3종(85~90웨클)으로 구분되며, 구역별로 최대 월 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국방부는 설명회에서 군 소음영향도 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군 소음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을 요구해 온 광산구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지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조사 일정, 결과 등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김상철 기자